

# 진입장벽 높은 일본과 독일에서 수출 꿈 이뤄

창업부터 5년간 맞춰온 팀웍 ... 기획, 마케팅, 개발 3박자 척척

한국어 교육 콘텐츠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 일본 진출, PDA 전시가이드 솔루션 독일 괴테하우스 상용서비스 등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기업 멀티화인테크(www.mft.co.kr).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을 제작하기까지 8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보낸 5년이다. 투자비를 벌기 위해 EBS, 대한교과서, YMCA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 60%는 외주용역 콘텐츠 제작에, 40%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한 개발에 밤샘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이다."

현재 동국대 영상제작과 교수이기도 한 멀티화인테크의 김재봉(42) 사장은 "비즈니스보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며 사업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한다.

취재 김진경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2001년부터 PDA 전시가이드시스템 특허를 출원하고 2002년 PDA GMS(PDA 콘텐츠 검색 엔진)를 개발하는 등 PDA 전시가이드 분야에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03년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국립중앙과학관 PDA 전시가이드시스템 개발 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외 전시관과 박물관에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김재봉 사장은 "TMS(Intelligence Museum System)는 전시가이드 외에도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전시물을 멀티미디어로 구현하는 엔터테인먼트형 전시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6개의 관련 솔루션을 비롯해 원격솔루션까지 개발 완료했다고 말했다.

## PDA 솔루션 'Pocket-Guide' 독일에 수출

멀티화인테크는 독일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업체인 듀알닷컴과 계약을 맺고, 박물관 가이드용 무선 PDA 솔루션인 '포켓가이드'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작가 괴테의 생가인 괴테하우스에 공급하게 됐다. 김재봉 사장은 2년여 전부터 개발한 'PDA를 이용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었다며 밝게 웃었다. 멀티화인테크는 이미 1차 샘플 콘텐츠를 제작하고 독일관광공사와 괴테하우스를 관리하는 괴테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과해 서비스하는 일만 남은 상태.

포켓 가이드는 PDA에 탑재된 이미지·음성·동영상 등을 통해 박물관 시설을 안내하는 솔루션이다. 전시물 설명뿐 아니라 위치정보 및 퀴즈콘텐츠를 첨가하는 등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서비스가 가능하고,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와 독일어가 추가로 지원된다.

김재봉 사장은 "유럽을 방문하던 중 한국 관광객이 많지만, 영어나 일본어만 서비스되는 것을 알고 한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DA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한국교포가 CEO인 듀알닷컴과의 제휴로 빠르게 독일진출이 이뤄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멀티화인테크는 연간 50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인 찾는 괴테 생가

에 무선솔루션 제공으로 연간 30만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외 멀티화인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Kio-Guide, Pocket-guide, Kio-Photo, Kio-Guest, Kio-Gallery 등이며, 덕수궁 미술관, 과천 정보나라, 선문대 비전관, 국립과학관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2005년 개최 예정인 일



퓨터기술과 접목을 시도해 미국 뉴욕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애큐미디어 테크놀로지(Acumedia Technology)사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기업 PR CD-ROM을 제작, 첫번째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인 한국어 CD-ROM 'Our Family Learns Korean'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현재 미국 내의 한인 교포

본의 아이치현 '민국박람회'에 박람회 안내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패키지-웹사이트-휴대폰까지 '원소스 멀티유즈'

멀티화인테크의 김재봉 사장은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의 일본에서의 성공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인 CD-ROM 뿐만 아니라, 워크북, 웹사이트를 통한 한국어 학습 토탈 솔루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며 "패키지 제품 한번 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웹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삼계탕 먹는 법,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 등 한국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시키게 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

또한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은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 일본의 KDDI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서비스 될 예정이다.

김재봉 사장은 "월 정액제로 300엔을 책정할 예정이며, 10만명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어 교육 시장 가능성 확신했다"

김재봉 사장은 "미국에서 버그 투성인 한국어 소프트웨어로 공부하는 교포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영어만큼 큰 시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분야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1987년부터 교육 영상물 제작 분야에 진출한 이래 10여 년 동안 영상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김재봉 사장은 1994년 4월 컷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부터 호평을 받아 일본어 버전으로 번역돼 일본으로까지 수출, 판매됐다. 이후 김 사장은 국내에 들어와 1998년 멀티화인테크를 설립했다. 그리고 후속버전이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으로 9개 CD로 이루어진 풀 패키지가 제작된 것이다.

### 영상학과 교수 CEO, 동영상 자체 제작

멀티화인테크의 임직원들은 각기 다양한 전공을 가졌다는 것이 특성이다. 우선 김재봉 사장의 경우는 물리학 전공에 전기학을 전공했으나 다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규슈예술공과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영상학을 배우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현재 멀티화인테크를 경영하면서 동국대 영상제작과 교수로 겸임 중이다. 그런 경험을 살려 스즈키가의 한국어 대모험의 일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김재봉 사장이 직접 콘텐츠 제작을 진두지휘하고, 직원들이 출연해 만들고 있다.

멀티플레이어가 된 배경에는 김재봉 사장의 나뭇의 경영 철학이 작용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라도 기획, 개발, 마케팅을 동시에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다. 'CTM 회의'라 이름 붙여진 회의는 Contents, Technology, Marketing 각 분야의 팀원이 참여하는 회의.

김재봉 사장은 "처음에는 불편해 했던 팀원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항상 유저들을 고려한 기획과 개발 그리고 마케팅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말했다. 